

사람은 하나님과 마귀의 중간적 존재

사람은 원래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아담 하나님과 해와 하나님이 에덴동산에서 살았다는 성경말씀이 기록된 걸 보아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야 천국이 건설되는 거지, 삼위일체 하나님이 안 계시면 천국이 건설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에덴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을 말하는 것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에덴동산 천국이 건설된 것입니다.

이것도 모르고 사람을 흠을 빚어서 만들었다고 마귀는 그 성경말씀 가운데에 기록을 해놓고 모든 인간들을 속여 인간들이 하나님이 다시 되려고 노력하지 못하게 유혹을 하였던 것입니다.

짜이 없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그래서 성경말씀 가운데는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와 책을 자세히 읽어봐라 짜이 없는 말씀이 하나도 없나니 이는 여호와와 입으로 모았음이라(이사야 34:16)”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성경 말씀 가운데에 마귀 말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고로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와 말씀은 짜이 없으니 짜이 있는 말씀이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살피서 보라는 것입니다. 그냥 덮어놓고 아무 뜻도 없이 그런 말씀을 했을까요? 성경 가운데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 선지자가 이 여호와와 말씀은 짜이 다 있느냐 짜이 없느냐를 짚아 보는 말씀이 아니고 마귀 소리나 속지 말라 이 소리요? 그러므로 이사야 선지자가 짜이 없는 말씀은 마귀 소리요, 짜이 있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였거늘 우리는 그 말씀이 진리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요? 짜이 있다는 건 바로 이치가 맞다 이 소리예요. 이치가 맞는 말은 말씀의 짜이 있어야 이치가 맞지, 말씀의 짜이 없으면 이치가 안 맞죠? 그래서 이치가 맞지 않는 말은 전부 거짓말이요, 전부 마귀 소리요, 비진리의 말씀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요? 성경 가운데에 짜이 맞지 않는 말이 많이 있어요, 많이 없어요? 흠을 빚어서 사람을 만들었다는 말씀에 짜이 말씀이 있어요? 또 다른 성경구절에 사람을 흠을 빚어서 만들었다는 말씀이 짜이 있어요? 짜이 없는 이런 말은 전부가 마귀의 소리예요.

그리고 아담과 해와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다는 말씀이 성경에 짜이 있죠? 선악과가 무엇이라는 것을 다른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어요? 없죠?

그러나 성경 말씀은 영적 말씀이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영적 말씀이라는 말씀은 바로 선악과 자체가 영적인 말씀인고로 영이라는 것입니까, 육이라는 것입니까? 선악과 자체가 영이라는 뜻이예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죽었으니 죽어 영입니까, 살리는 영입니까? 죽어는 영이요? 이렇게 성경은 전체적으로 조리있게 보아야 성경의 정답이 나오는 거요?

그래서 뱀의 꼬임에 빠져서 해와가 선악과를 먼저 먹은 다음, 자기 남편 되는 아담에게 그 선악과를 먹게 하였다는 말씀이 성경에 짜이 있죠?

뱀이 해와를 꼬였다는 성경말씀은 거짓말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뱀이 말을 해본 적이 있어요? 없죠? 성경은 뱀이 말했다고 짜이 있죠? 그 말이 거짓말입니까, 참말입니까? 태초에 뱀이 말했다면 지금도 뱀이 말을 할 줄 알아야 말했다는 말이 입증되는 거요? 그러나 뱀이 말해요? 말 못하죠? 그러니까 그 성경에 기록된 말이 거짓말입니까, 참 말입니까? 거짓말이요? 짜이 있는 말씀입니까, 짜이 없는 말씀입니까? 짜이 없는 말씀이요? 뱀이 말했다는 말이 거기에만 기록되어 있고 다른 데서 또 뱀이 말을 했다는 말이 없죠? 짜이 없죠? 짜이 없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요, 마귀의 말이라는 것이요?

선악과를 먹었다는 말씀만 기록되어



메시아(彌沙, Messiah) 조희성님

있지, 선악과가 무엇이라는 말씀이 기록이 안 되어 있죠? 선악과를 먹고 죽게 되었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느냐 성경 말씀은 영적 말씀인고로 영인고로 영은 영인데 죽어는 영이 선악과라는 답이 나오죠? 죽어는 영이면 마귀영입니까, 하나님의 영입니까? 마귀영이요? 그러므로 아담과 해와 하나님이 마귀의 영을 먹었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마귀가 속임수로 그렇게 기록한 것이지, 실제로는 먹은 것이 아니고 선악과가 되는 마귀가 바로 하나님 속에 침투해 들어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라는 주체의식으로 있었을 때에는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이었으나 마귀의 영이 들어와서 마귀의 영이 하나님의 영을 사로잡고 마귀가 주체영이 되어버리니까 그 순간 하나님이 아니고 마귀도 아닌 중간지 사람으로 변한 것이라고 말씀을 해야 이치가 맞죠?

사람은 흠으로 만든 존재가 아니다

사람은 하나님도 아니고 마귀도 아닌 중간지 존재요? 그러므로 흠을 빚어서 사람을 만들었다는 이 말은 너무나 무이치가 맞지 않죠? 여러분들이 흠으로 사람의 몸을 만들 수가 있어요? 없죠? 흠으로 사람 눈을 만들 수가 있어요? 없죠? 흠으로 사람 머리카락 만들 수가 있어요? 없죠? 그런 이치도 맞지 않는 말을 적어놓고 그걸 덮어놓고 믿으라고 하는 어불성설이죠?

또한 성경에는 “너희는 신들이니 지존자의 아들들이라(시편 82:6)” 기록되어 있죠? 사담터러 신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죠? 또 지존자의 아들이라고 했으니 까 지존자가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사람이 전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그랬죠? 남자와 여자도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세계는 여자 남자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마귀가 하나님을 점령하여 하나님의 영을 사로잡고 마귀 육에다가 가둬놓고 마귀가 주체영이 되어서 주인이 되어버리니까 하

님이 사람으로 변화가 된 거요?

그러므로 성경에는 사람이 죄인이라고 써어 있어요, 의인이라고 써어 있어요? 죄인이라고 써어 있죠? 왜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그 뜻도 모르는 게, 그게 종교단체예요? 그 뜻도 모르면 종교단체가 아니예요. 하나님이 마귀에게 점령당하는 순간 사람으로 변했는데, 아담 하나님은 남자가 되고, 해와 하나님은 여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성경에 숨어 있는 진리를 캐낼 줄 모르면 그건 종교단체가 아니예요. 하나님이 변해 사람이 되었다고 해와 맞는 말씀이 되는 게 뭐냐 하면, 사람마다 하나님을 닮았어요, 마귀를 닮았어요? 하나님을 닮았죠? 하나님의 성품이 거의 70-80%가 있어요. 그런데 30%의 마귀의 영을 닮은 것이 있기 때문에 사람으로 된 거예요.

사람이 죽기 싫어하는 본성은 하나님의 본성

또한 사람마다 죽기를 싫어해요? 죽기를 좋아해요? 죽기를 싫어하죠? 태어나자마자 죽기를 싫어해요. 이제 그대로 쫓을 안 주고 배가 고프면 죽을까봐 막 소리소리 지르면서 울죠? 왜 그러냐 하면 죽기 싫어서 그렇죠? 태어나자마자 죽기를 싫어해요. 그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이요, 성품인데 그것이 하나님인 조상을 닮아서 그래요. 아시겠어요?

인간은 전부 다 신이라고 시편 82편 6절에 써어 있죠? 신은 신인데 무슨 신이냐면 하나님의 신도 아니고 마귀 신도 아니고, 중간지의 신이라는 얘기요? 신은 틀림없는 신이요? 하나님의 신이 약 70-80% 있고 나머지 20-30%는 마귀 신이 있는 고로 그러므로 하나님의 신도 아니고 마귀 신도 아니고 중간지의 신이죠?

그래서 신은 신이라는 소리요? 너희는 다 신들이니, 지존자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거요? 남자와 여자도 할 것이 없이 하나님의 아들이예요. 남자들만 아들이라고 빼가지 마세요. 여자들도 아들이예요, 아시겠어

요? 하나님의 아들이예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마귀 영에게 사로잡히는 순간 해와 하나님이 여자가 되었고 아담 하나님이 남자가 된 것뿐이예요. 아시겠어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지식이지, 사람은 동물 지식도 아니고 사람은 마귀자식도 아니예요. 사실은 사람이 하나님의 지식이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시편 82편 6절에 써어 있어요. 예수가 성경 구절을 보았다면, “나는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말을 했을까요? 그런 말을 못했어. 성경을 몰랐던고로 그 성경구절을 읽어보지 못했던고로 예수는 내가 하나님의 외아들이라고 외쳤던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외아들이라는 말을 왜 했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외아들이라는 말을 한 그 의의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모든 하나님 아들인 인생들을 전부 멸해서 없애버리는 목적으로 이 세상에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러 온 사람이 아니고 사람을 전부 전멸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는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 말을 요한복음 11장 25절에 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하고 죽지 않는 줄 알고 예수를 전부 믿지만 2천년 동안 예수를 믿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영생을 얻은 사람이 있었어요? 없죠? 그게 거짓말이예요. 참말이예요? 거짓말이요? 예수는 거짓말쟁이요? 그런데 성경에는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안다는 말씀이 짜이 있죠? 그러니까 죽음의 열매가 맺으면 그 나무는 마귀 나무예요, 하나님 나무예요? 마귀 나무요? 죽음의 열매가 맺으면 사망의 신이 되는 거요? 사망의 신이 마귀요? 그러니까 바로 사람을 죽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온 사람이라는 건 확실히 알 수 있죠?

그러므로 성경에는 분명히 사담터러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사람들이 전부 신이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연재] 아브라함 족장시대에서 삼손의 사사시대까지

《9장 사사시대》

6절: 갈렙, 초대 사사 웃니엘 그리고 에훗



(1) 갈렙

여호수아 이후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유다지파에는 여호수아와 같은 세대 유일하게 생존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이방 족속 그나스 사람의 후손 갈렙입니다. 유다지파가 예루살렘과 헤브론을 점령한 후, 헤브론을 갈렙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유다지파가 헤브론을 점령할 때에, 갈렙이 앞장서서 그곳에 살던 아낙의 세 아들 세새와 아히만과 탈매의 자손들을 모두 무찔렀습니다.

민수기 13장 22절 또 네겔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년보다 칠 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새와 탈매가 있었다

사사기 1장 20절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들을 쫓아내었고

갈렙은 호전적인 성품을 지녔으며 자기 과시욕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평소 신중하지 못하였고 성급한 판단으로 낭패를 보기도 하였습니다. 그 일례로 갈렙이 헤브론에서 남서쪽 20킬로미터쯤에 있는 기랴세벨(드벨)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자기 딸 야사를 주겠다고 호언(豪言)하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딸 야사는 자신에게 한마디의 상의(相議)도 없이 마치 도박꾼의 내기에 자신을 내거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고 한숨지었습니다. 뜻밖에도 갈렙의 딸을 내걸은 기랴세벨을 점령한 자는 다름 아닌 갈렙의 조카 웃니엘이었습니다. 갈렙의 딸 야사는 사촌오빠와 결혼한다는 사실에 수치심으로 흐느꼈습니다. 도저히 얼굴을 들고 헤브론에서 살 수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갈렙은 그의 딸과 사위 웃니엘을 남방으로 내려가서 살도록 했습니다.

남방으로 출가하는 야사는 남편 웃니엘에게 아버지에게서 딸을 얻었다고 재

촉하였습니다. 갈렙이 사위 웃니엘에게 딸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약사가 떠나지 아니하고 나귀에서 내리자, 갈렙이 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아버지여, 저에게도 복을 주소서. 메마른 네겔 지방에서 시집살이를 잘 할 수 있도록 샘 몇 개만이라도 주세요.” 그리하여 갈렙은 딸에게 뒷샘과 아랫샘을 주었습니다.

(2) 초대 사사 웃니엘

BC1384년경에 웃니엘은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리사다임을 물리침으로써 가나안에서 8년 동안 메소포타미아의 식민지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켰습니다. 그 이후로 가나안 땅은 그나스의 아들 웃니엘이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 전쟁이 없이 평온하였습니다.

(3) 에훗

유다지파에 속한 웃니엘이 죽자, 이번에는 모압 왕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을 모아 종려나무 성읍인 여리고를 점령한 후 이스라엘을 침해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은 모압 왕을 18년간 섬기게 되었습니다. BC1316년경에 베냐민 지파의 사람 에훗이 조공을 바치는 자로 변장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접근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는 허벅지에 숨긴



▲ 갈렙과 그의 딸 야사

칼을 왼손으로 빼어 들고 에글론의 배를 찔러 죽였습니다.

사사기 3장 23절: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 뒤에서 달아잡고나

24절: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

25절: 그들이 오레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서 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려 죽었더라

원래 베냐민지파에서는 특이하게도 왼손잡이가 심심찮게 출생하였는데, 에훗 역시 왼손잡이로 태어났습니다. 에훗은 모압 왕 에글론을 암살하기 몇 년 전에 모압 왕의 신하들에게 의심받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오른팔을 베었던 것입니다. 모압 왕의 신하들은 오른팔이 없는 불구자인 에훗이 그들의 왕 에글론을 살해하려던 상상도 못하고 왕과 독대(獨對)하기를 원하는 에훗의 청을 들어주었던 것입니다.

모압왕 에글론을 살해한 에훗은 예브

라임 산지로 올라가 나팔을 불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하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군대를 이끌고 모압 맞은 편 요단강 나루로 쳐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일반명의 모압 군인을 죽였습니다. 그 날 모압은 굴복하여 이스라엘의 통치를 받게 되었고, 그 뒤로 그 땅에는 80년 동안 전쟁이 없이 평온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임종한 지 백여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가나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세대들은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 이후 몇 세대를 지난 새로운 세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게 되었으며 또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자손들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함께 섞여 살면서 이들 이방 족속의 딸을 데려다가 자기들의 아내로 삼았고, 또 자기들의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방인과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서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습니다.* 안젤라